

##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대구시 달서구, 경북 경산시, 구미시를 사례로

권혁민\*

**요약** 한국 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543,447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이주과정,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및 특성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전국 단위 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를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도시로 구분하여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적응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이주요인 및 과정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둘째, 한국 입국 후 취업한 직장의 특성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거지 유형, 지역사회 정체성, 소비 및 지출에서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지역별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이주노동자, 국제이주,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적응

### 1. 서론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해외 취업이 많은 국가였다. 이들 취업의 대부분은 중동 지역의 건설 현장이었다. 이러한 해외취업은 1980년대 중반

---

\*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원, 지리학, overload486@nate.com

까지 증가되었지만, 이후 해외로의 이주노동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내 고용기회의 증가, 경제수준의 향상, 해외취업에 대한 매력의 저하였다. 한편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고용기회의 증가와 경제수준의 향상, 고학력화 등으로 3D업종에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의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제조업 및 건설 등 업종의 인력난에 대한 대책으로 연수취업제, 취업관리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각종 제도들이 수립되었다. 한국 내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수정 및 신설되었다는 것은 노동력 부족 대안으로 외국인력을 이용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논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입배경과 적응과정, 복지, 법 등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역별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지역단위의 연구는 ‘광역시·도’에 그치고 있고, 좀 더 세밀한 지역적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가 일단 유입되면 지리적 고정성(geographical fixedness)으로 인하여 국가 내에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적응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거주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주노동자는 지역적으로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소도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해외취업 배경)을 생애이동을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이들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소도시인 대구시, 경산시,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적응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직장과 지역사회로 구분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직장과 지역사회 특성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이 지

역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동향 및 이론

###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는 등록, 미등록 상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발표 된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는 합법적 상황, 즉 법적인 제약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등록(합법)과 미등록(불법)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등록·미등록 노동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는 D-3, E-8, E-9, E-10, H-2에 한정하였다.

### 2) 이주노동자의 연구동향

국내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주자들의 국제 이동경로분석(Peter stalker, 2004),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진희 외, 2005), 산업화 단계별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력 유입(정수열, 1999), 국내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요인 분석(정진화, 2005)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취업을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and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이다. 지리적 입장에서의 이주노동자들

의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분석(정연주, 2001), 에스닉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공간적 변화와의 관련성 규명(조현미, 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체성 변화과정 연구(茂陸, 2007), 직장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오계택, 2007) 등으로 점차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패턴에 관한 세부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통적인 한계점은 이주노동자와 지역과의 관계에서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입국과 동시에 강력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지리적 고정성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적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국적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에 따른 비교가 있더라도 도시규모에 따른 특성 및 적응에 관한 차이점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도시와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소도시로 구분하여 도시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적 특성(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형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개별 지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3) 이주노동자의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

이주노동자의 국제이주는 해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강조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주,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배경에 의해 노동의 국제적 이주가 일어난다는 구조이론, 개인의 의사결정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가 일어난다는 행위-구조 관계이론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주 중 흡인-배출요인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이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노동력이동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행위이론에는 흡인-배출요인, 비용편익분석, 국제노동력이동이론 등이 있다. 흡인-배출요인은 국제적 노동이주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배출요인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흡인력 간의 관계속에서 결정된다. 배출요인으로는 고용기회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부실한 사회시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억압,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흡인요인으로는 많은 고용기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많은 사회시설의 확충, 쾌적한 기후와 경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 이외에 이동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이 있다. 이동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원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목표지의 긍정적·부정적 요인, 기원지와 목적지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장애물(이동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비용과, 이주규제법이나 노동허가규제법 등), 개인적 요인을 들고 있다(이희연, 1986).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노동자가 타국으로 이동한 배격을 편익과 이동비용을 계산하여 이익이 가장 큰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흡인-배출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것은 개인이 본국과 타국에서의 기대 수입을 고려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 타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다. Todaro(1969: 설동훈, 2000 재인용)에 의하면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해외로 곧장 취업하기 보다는 농촌에서 도시로 먼저 이동 후 곧 해외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외 국제노동력이동 이론은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저개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부족한 고임금의 선진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개별국가들의 균형되지 않는 경제수준이 국제노동력의 이동을 발생시키고,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 4)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이론

이주노동자의 국내에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와 직장이라는 곳에서 적응을 하게 된다.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응과정,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배제 등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적응행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적응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사회, 집단, 인간관계 등),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도 적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주노동자는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화적응이란 개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적응상의 문제로, 기본적으로는 언어소통의 문제로부터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차별적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혜경 외, 1998).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타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심리적·문화적 적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응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지속된 소외감이나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본국에서보다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본국과 비슷한 상태라면 두 문화를 모두 적응한 것에 해당되고, 본국보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더 좋은 상태가 된다면 완전한 현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蔑陸, 2007).

사회적 거리감은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또는 주관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학적, 경제적, 지리적, 역사·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주노동자에 사회적 거리감은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매우 복합적 현상이다.

사회적 배제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는 '신빈곤층', 미국에서는 '하층계급'에 대한 논쟁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전체 사회의 변동과, 그 사회 내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즉, 사회적 배제는 해당 사회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역동적으로 구조적 발전을 경험하는 과정과, 동시에 '누군가(의 집단)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집단)에 행해지는 어떤 것'이 담겨있다(Byrne, 1999). Giddens(1999)는 배제에 대해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배제의 극복은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때 가능하다. Beck(2006)은 빈부격차는 노동 수익의 감소와 자본수익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이는 근대사회의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의 틈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배제라고 하였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이들의 공통 점은 첫째, '배제된 자'와 '배제되지 않은 자'를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고, 둘째, 배제는 어느 사회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셋째, 배제의 주요 내용은 불평등이다.

##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시규모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도시규모는 대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지방중소도시로 구분하고, 사례지역을 대도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도시 근교도시는 '경산시', 지방중도시는 '구미시'로 연구지역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 및 적응을 비교하였고, 지역 내에서도 직장과 지역사회를 분리하여 각각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4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이다. 대구에서는 성서 이주노동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 경산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벨엘교회, 복민교회에서 조사하였다. 구미는 구미제일교회와 꿈을 이루는 사람들(구미마하뱃다센터)에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주말에만 접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요일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부실한 설문지 제외)는 대구시 달서구 68부, 경산시 60부, 구미시 61부로 총 189부이다.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를 토대로 연도별, 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도표화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Arcview GIS version 3.2를 활용하여 지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3. 국내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분포

#### 1) 이주노동자의 연도별 유입 현황

한국의 총 등록외국인은 2011년 12월 현재 982,461명으로, 2000년(210,249명)보다 772,212명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는 543,437명으로 전체의 55.31%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의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는 완만하였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시적 합법화와 비전문취업의 시작으로 2002년에서 200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책적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달라졌다. 최초 산업연수생이 가장 많았으나, 비전문취업과 연수취업의 등장으로 산업연수생의 수가 급감하게 되고, 이 중 비전문취업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산업연수생·연수취업제도의 폐지와 함께 방문취업(H-2)제도의 신설로, 2011년 현재 대부분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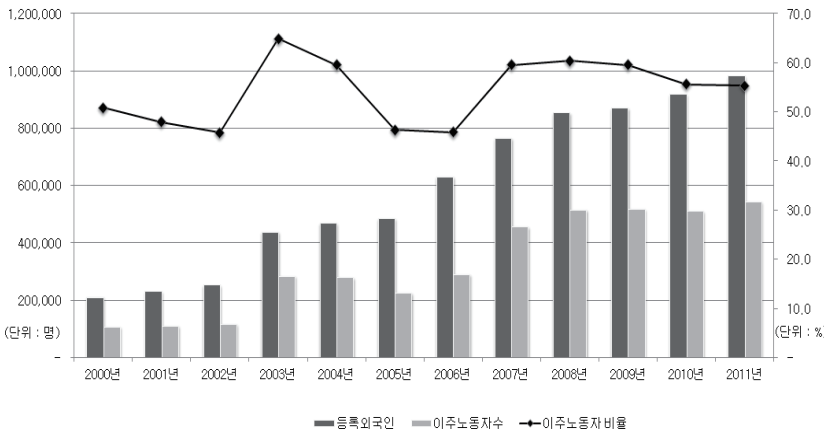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이주노동자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연도, 「출입국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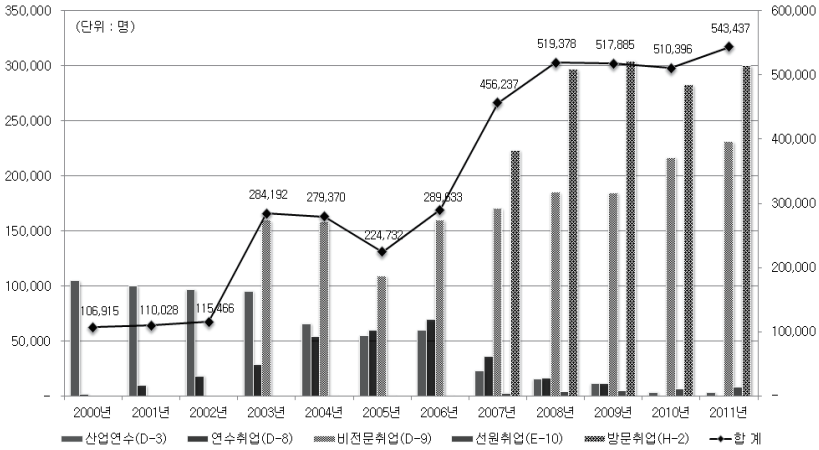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연도, 「출입국통계연보」.

## 2) 이주노동자의 지역적 분포

시군구별 이주노동자는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한국의 공업입지와도 유사하다. 수도권은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이고, 영남 지역의 남동해지역은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제2의 공업지역이다. 즉, 이주노동자의 분포는 공간적으로 공업지역과 일치하고 있다(그림 3).

국내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산업연수생들도 시군구별 자료와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지역인 구미지역은 전국에서도 산업연수제도로 유입한 이주노동자들이 전국단위에서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서울지역 내에서는 그 분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취업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다. 연수취업제는 산업연수제도에서의 변경으로 취득되어지는 비자유형이기 때문에 그 분포 또한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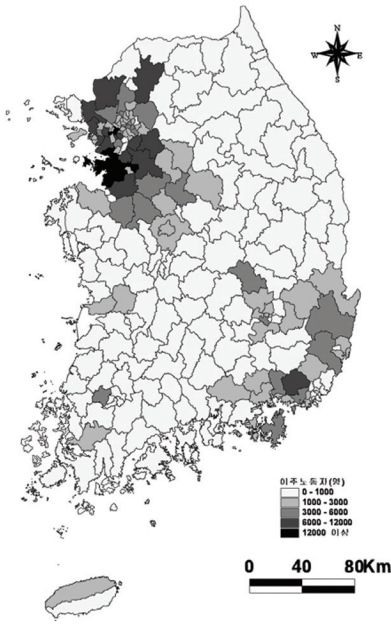


그림 3. 시군구별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분포

자료: 법무부, 2008,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자와는 달리 직종의 선택이 다양하고,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다.

선원취업 이주노동자는 그 특성상 주로 해안가에서 높은 비율을 보고,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그 비율이 높는데, 이는 서해보다 동해와 남해에서 연근해 어업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난다. 본 연구지역에서 대구시 달서구는 연수취업생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취업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역시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한다. 특이한 점은 서울외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내에 있던 공장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을 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비전문취업생은 서울외곽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4). 방문취업은 산업연수·연수취업·비전문취업 등의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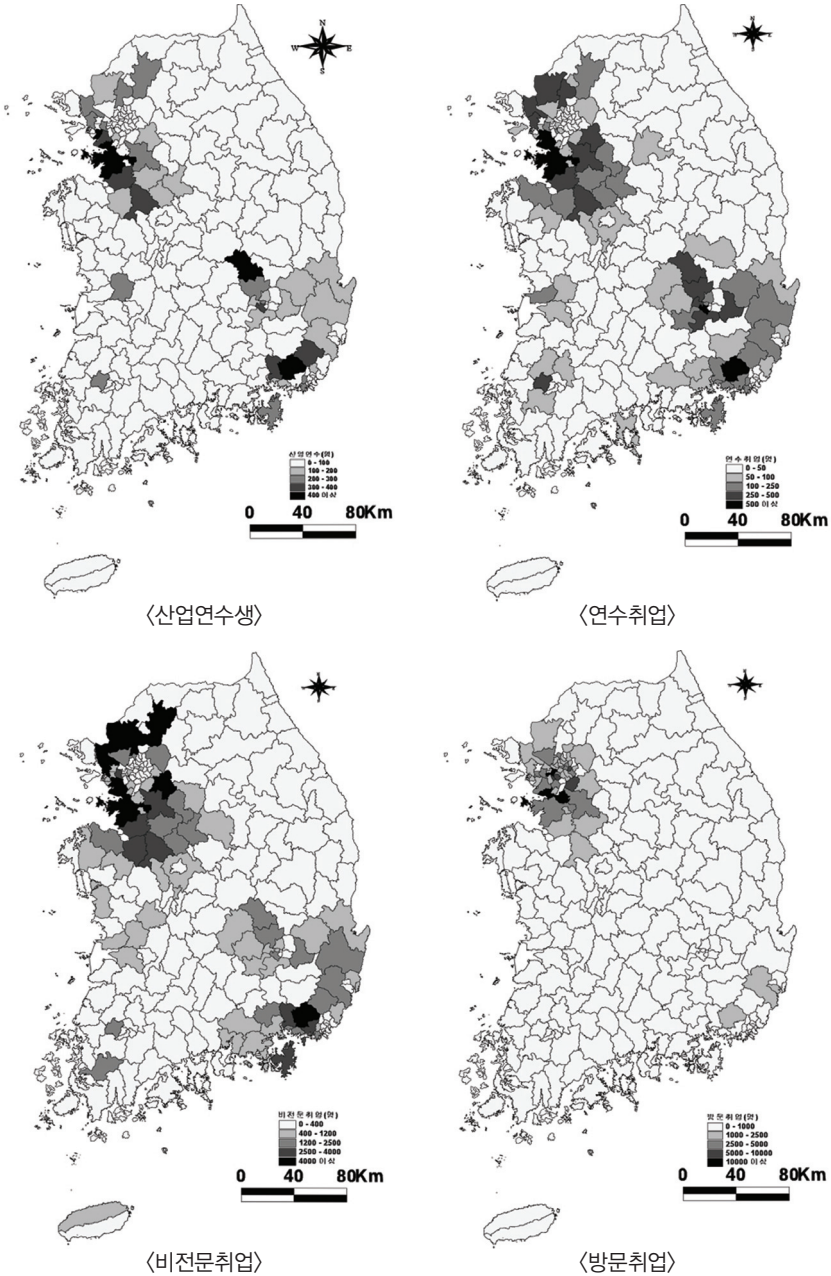


그림 4. 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의 공간적 분포

자료: 법무부, 2008,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4. 이주노동자의 사례지역 연구

이주노동자의 국적 중 중국이 전체의 51.9%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5~39세 사이의 이주노동자들이 전체의 65.6%로 다수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이 가장 많은 30.2%를 차지하였다. 고용허

표 1. 사례지역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일반 사항		전체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국적	중국	98	51.9	37	54.4	25	41.7	36	59.0
	베트남	46	24.3	17	25.0	4	6.7	25	41.0
	필리핀	8	4.2	8	11.8	0	0.0	0	0.0
	인도네시아	9	4.8	0	0.0	9	15.0	0	0.0
	몽골	2	1.1	0	0.0	2	3.3	0	0.0
	스리랑카	1	0.5	1	1.5	0	0.0	0	0.0
	기타	22	11.6	2	2.9	20	33.3	0	0.0
	무응답	3	1.6	3	4.4	0	0.0	0	0.0
합계		189	100.0	68	100.0	60	100.0	61	100.0
연령	20~24세	23	12.2	3	4.4	14	23.3	6	9.8
	25~29세	48	25.4	14	20.6	15	25	19	31.2
	30~34세	41	21.7	16	23.5	13	21.7	12	19.7
	35~39세	35	18.5	17	25.0	7	11.7	11	18.0
	40세 이상	26	13.8	8	11.8	11	18.3	7	11.5
	무응답	16	8.4	10	14.7	0	0	6	9.8
	합계		189	100.0	68	100.0	60	100.0	61
체류 자격	D-3(산업연수)	17	9	10	14.7	6	10	1	1.6
	E-8(연수취업)	13	6.9	9	13.2	1	1.6	3	4.9
	E-9(비전문취업)	57	30.2	17	25.1	19	31.7	21	34.4
	H-2(방문취업)	10	5.3	3	4.4	2	3.3	5	8.2
	관광, 단기취업비자	39	20.6	9	13.2	13	21.7	17	27.9
	기타	38	20.1	9	13.2	19	31.7	10	16.4
	무응답	15	7.9	11	16.2	0	0	4	6.6
	합계		189	100.0	68	100.0	60	100.0	61

일반 사항		전체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입국 연도	2004년 이전	26	13.8	16	23.5	5	8.3	5	8.2
	2004~2007년	95	50.3	32	47.1	24	40	39	64
	2008년 이후	45	23.8	12	17.6	22	36.7	11	18
	무응답	23	12.1	8	11.8	9	15	6	9.8
	합계	189	100.0	68	100.0	60	100.0	61	100.0
등록 상태	합법(등록)	75	39.7	24	35.3	23	38.3	28	45.9
	미등록(불법)	97	51.3	40	58.8	26	43.4	31	50.8
	무응답	17	9	4	5.9	11	18.3	2	3.3
	합계	189	100.0	68	100.0	60	100.0	61	100.0
한국 어구 사능 력	매우 못함	36	19.0	12	17.6	15	25.0	9	14.8
	못함	38	20.1	14	20.6	11	18.3	13	21.3
	보통	39	20.6	11	16.2	15	25.0	13	21.3
	잘함	50	26.5	19	28.0	13	21.7	18	29.5
	매우 잘함	17	9.0	6	8.8	3	5.0	8	13.1
	무응답	9	4.8	6	8.8	3	5.0	0	0.0
	합계	189	100.0	60	100.0	60	100.0	61	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2007년 까지 입국한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등록상태를 묻는 설문에서 미등록상태(불법)가 51.3%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방문취업제도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5.7%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 1) 이주요인 및 이주경로

이주노동자들이 국제이주를 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본국의 사항과 해외취업 국가인 한국의 조건에 관한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흡인-배출 이론을 틀로 하여 작성하였지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요인들이기보다는

개인적 행위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생애이동적 측면에서의 국제이주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이동한 것을 생애이동(Lifetime migration)이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생애이동은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관련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출생지역,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 한국취업 전 타국취업, 한국취업 후 한국 내 이동으로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이동에만 국한한다.

### (1) 송출국 요인

대구시 달서구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좋은 직장의 부족’으로 인해,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취업의 선호’와 ‘고용기회의 부족’이 해외취업을 하게 된 본국의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의외로 ‘해외취업의 선호’가 평균보다 낮은 2.93으로 나타났지만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해외취업을 하게 되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기술습득의 한계’, ‘고용기회의 부족은 세 지역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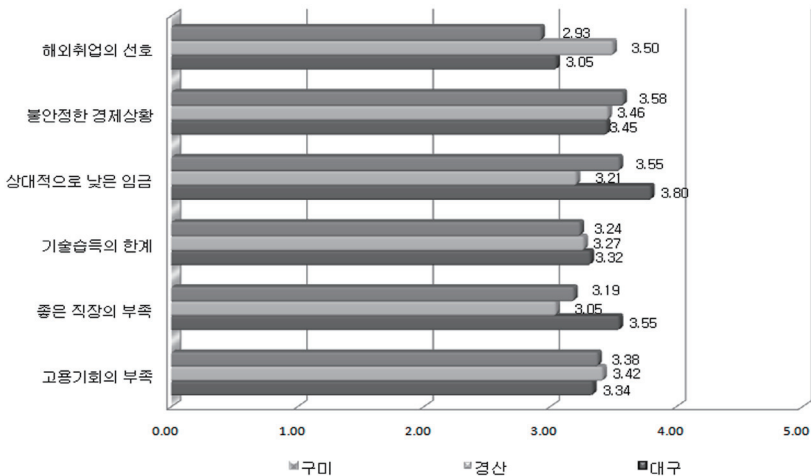


그림 5. 이주배경으로서 본국의 사항에 관한 인식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두 3.2~3.5 정도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이 세 요인들은 모든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미미하지만 배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해외취업의 선호’,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좋은 직장의 부족’의 항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해외취업의 선호’ 항목에서는 경산 지역이 3.50으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구미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요인 중 가장 낮은 2.93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는 구미시는 3.55, 대구시 달서구는 3.80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경산은 3.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좋은 직장의 부족’에서는 대구시 달서구 지역이 타 지역보다 0.4이상 높았다.

## (2) 국내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취업절차, 다양한 업종선택, 저렴한 취업비용, 기술 습득에 유리함,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역사적으로 비슷한 점 등을 요인으로 삼고 국내 요인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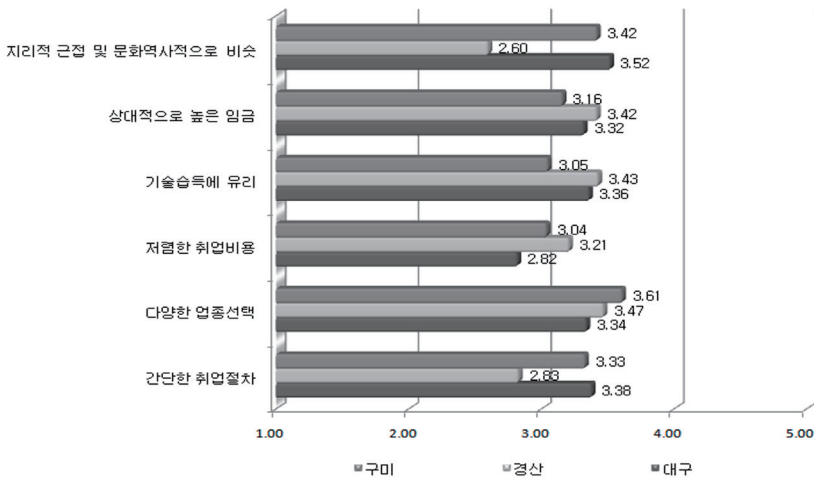


그림 6. 이주배경으로서 한국의 조건에 관한 인식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각 요인들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타국가와 비교할 때 ‘간단한 취업절차’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구미시와 대구시 달서구가 3.35 정도이지만, 경산시(2.83)는 취업절차에 대해 까다롭다고 인식했다. 한국으로의 취업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달서구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2.82로 취업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해외취업 시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임금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의 해외취업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이주노동자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세 지역 모두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산지역에서는 2.60으로 타 지역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시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경산지역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요인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요인들은 평균 이상으로 분석지역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이주경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것을 생애이동(Lifetime migration)이라 한다(설동훈, 2002)<sup>1</sup>.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생애이동을 ‘출생지역’,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 ‘한국취업 전 타국취업’, ‘한국취업 후 한국 내 이동’을 기준변수로 삼아 조사하였다. ‘출생지역’은 대도시(100만 명 이상), 대도시 주변도시(5만~100만 명 이하), 지방중소도시(5만~100만 명 이하), 농촌·어촌·산촌(5만 명 이하)로 구분하였다.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도 출생지역과 같은 변수로 작성하였다. 생애이동경로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주노동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응답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빈도수를 나

1 설동훈의 연구(1996)에서는 한국계 이주노동자는 농촌 출생자의 도시로의 이동률이 비교적 높지만 제3국 취업 경험율과 계획율이 낮고, 비한국계 이주노동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주노동자의 신분별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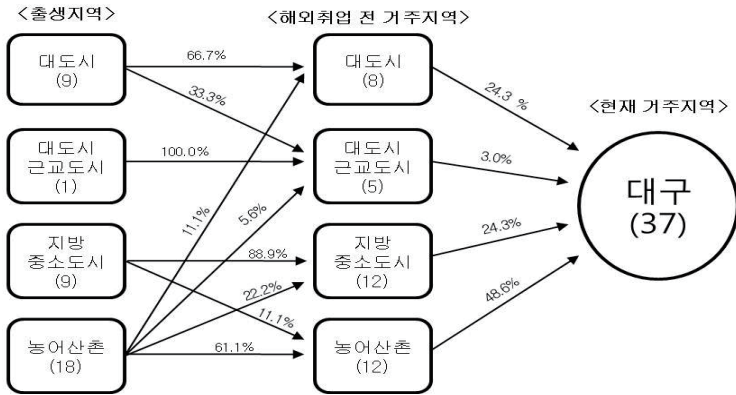


그림 7. 대구지역 이주노동자의 이주경로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타냈다. 하지만 이들의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 달서구 주노동자의 ‘출생지역’ 중 48.6%가 농어산촌 출신이었다.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들의 출생지역을 도시와 농어산촌으로 비교하면 도시와 농어산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근교도시 순이다.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에서는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산촌의 비율이 32.4%로 동일하였다. 농어산촌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지방중소도시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농어산촌 출신자가 해외취업 전 지방중소도시로 거주지 이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에서 대도시 근교도시의 비율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도시에서의 유입과 농어산촌에서의 유입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출생지와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을 볼 때, 농어산촌에서의 인구유출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에서 한국으로 해외취업을 한 경우는 32.4%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해외로 공장 취업하기 보다는 농촌에서 도시로 먼저 이동 후 곧 해외취업을 하는 경향(설동훈, 2002 재인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인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의 76.6%는 ‘출생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그중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어산촌 지역은 대도시 근교도시와 같은 16.2%이다. ‘출생지역’에서의 이동을 볼 때, 대구시 달서구는 농어산촌, 경산지역은 지방중소도시에서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미지역에서는 모든 출생지에서의 인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취업 전 거주지역’에서는 지방중소도시의 비율이 ‘출생지역’보다 조금 상승하였고, 대도시 근교도시와 농어산촌의 비율은 조금 낮아졌다.

#### (4) 이주노동자의 지역선정 요인

입국연도별로는 대구시 달서구는 2008년 이전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이 입지한 곳을 가장 중요한 지역선정 요인이었으나, 2009년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적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높은 비율은 ‘높은 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지역은 2005년 이전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50%가 ‘직업소개소 및 정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2004~2008년 입국자는 ‘좋은 근무여건’을 지역선정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2009년 입국자들의 57.1%는 ‘높은 임금’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 취업직장의 특성

### (1) 사업체 규모와 업종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종사자 규모를 볼 때, 대구시 달서구는 63.9%, 경산은 72.7%가 소기업(5~4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미는 중기업(50~299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51.7%로 가장 높았다(그림 10). 이것은 지역별 사업체 특성 과도 일치한다. 2008년 9월 현재, 사례지역인 대구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의 업체당 종업원수는 22.8명, 경산시의 진량산업단지는 44.5명,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는 81.0명이다. 즉,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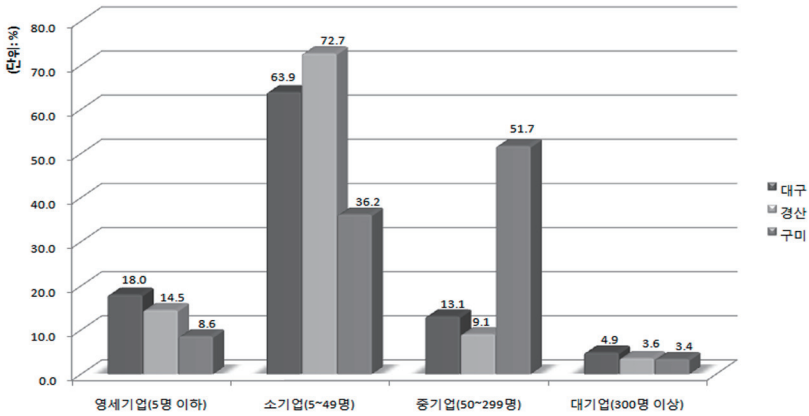


그림 10. 이주노동자 고용업체의 종사자 수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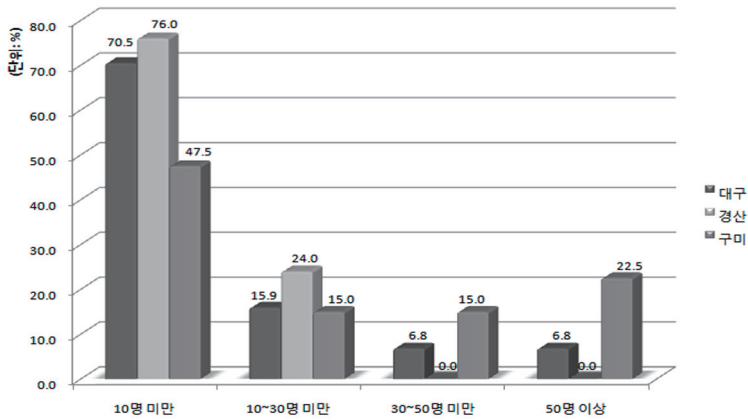


그림 11. 업체당 이주노동자 고용인원수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노동자의 근무처가 되는 지역 내 산업단지의 규모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이주노동자 고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이주노동자의 고용인원에서 세 지역 모두 한 업체당 ‘10명 미만’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그림 11). 대체로 이주노동자

고용인원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10명 미만'이 가장 높은 47.5%를 차지한다. '10~30명 미만'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30명 이상의 고용에서는 다른 두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5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22.5%로 대구시 달서구(6.8%)와 경산(0.0%)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본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들은 이주 전 '농임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구미지역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각 지역별 이주노동자들의 이주 전 취업은 특정 직업에 몰려있는 경향이 거의 없고, 매우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직종은 대구시 달서구는 '1차금속, 금속, 비금속가공 제조업'이 26.2%, 경산지역은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30.4%, 구미지역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64.4%로 가장 많았다. 지역의 산업단지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역 산업단지의 종업원수 규모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역 산업단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미지역에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전체의 64.4%로 월등히 높다.

## (2) 입사경로와 고용원인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입사경로라고 하여, 제도적(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비공식적 브로커 이용), 한국 내 입국 후의 입사 경로(취업광고, 먼저 입사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로 구분하였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먼저 입사한 이주노동자'를 통

한 입사경로가 가장 높았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사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각종 제도적 입사경로를 통해 입국한 경우는 전체의 46.5%였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의 고용이유를 고용주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장시간 작업가능’, ‘편한 관리’, ‘단기간 활용’, ‘높은 생산성’, ‘한국인노동자 구직곤란’ 등 5개 항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은 ‘한국인노동자 구직곤란’이 각각 39.1%와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유길상 외(2004)의 연구에서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국내 인력을 구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의 고용과 고용주의 입장에서의 고용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미지역은 ‘높은 생산성’이 35.0%로 가장 높았다. 유길상 외(2004)의 연구에서 사업체 조사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은 87.4%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와 같이 구미지역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간동안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근로시간과 임금

한국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상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달 기준 보았을 때, 최대 근로시간은 약 220시간이 된다. 대구시 달서구는 ‘220시간 미만’이 18.6%, 경산지역은 22.2%, 구미지역은 35.6%로 최대근로시간 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보다 그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달서구(41.9%)와 경산(44.5%)지역은 ‘220~299시간’ 근무한다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구미지역은 40.0%가 ‘3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시간이 부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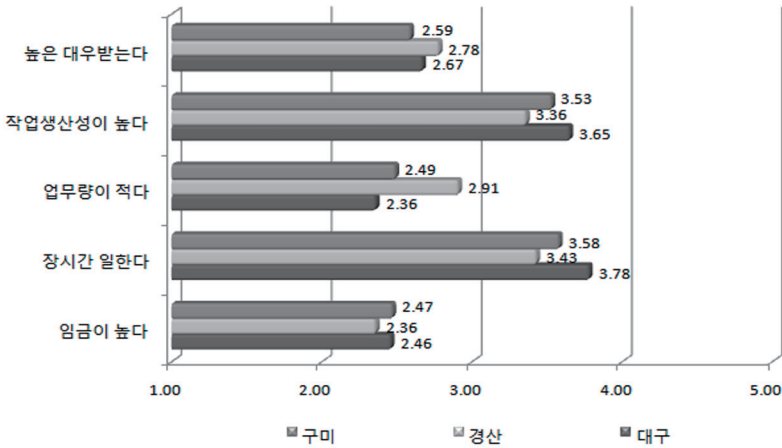


그림 12. 동일 직종의 한국인 동료와 비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은 세 지역 모두 '100만원~129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들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낮은 16.4%이고, '130만원~199만원'(전체의 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타 지역 이주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한국인 동료와의 비교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동료와 이주노동자 간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세 지역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12). '임금'은 세 지역 모두 한국인 동료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업무시간'은 한국인 동료보다 장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량'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동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동료와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작업생산성'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한국인 동료보다 작업생산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작업생산성과 관련된

‘이주노동자가 직장 생산액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의 38.6%, 구미지역 이주노동자의 34.0%는 직장 생산액에 대한 기여도가 8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32.1%가 60~80% 미만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인식하였다.

### (5) 기술교육 및 귀환교육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후 지역 내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최초 이주노동자는 적성과 근로경력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상의 안정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업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기술교육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받지 않음’이다. 특히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장에서 기술교육을 한 시간도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의 41.0%나 되었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는 ‘받지 않음’이 가장 높으나, 그와 비슷한 수치로 ‘1달 이상’ 기술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는 기술교육기간에 대해 ‘받지 않음’을 제외할 경우 ‘1~2주’가 가장 많은 19.0%이다.

귀환교육은 이주노동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 단지 ‘돈을 벌기위해’ 노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들의 적응과 본국으로 귀환 후 자립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직장에서 실시되는 교육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현재 하고 있는 업종 관련 교육이 있으나, 귀환을 대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현 직장에서의 기술교육을 보충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 3) 거지 지역사회의 특성 및 적응

### (1) 주거지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지 형태와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거지 형태는 ‘기숙사’, ‘직장주선 개별주

택’, ‘본인마련 개별주택’, ‘친구·친척집’, ‘기타’로 구분하였다.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는 ‘본인마련 개별주택’에 42.4%가 거주하고 있었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의 38.6%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구미지역은 53.3%가 ‘본인마련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직장 주변’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비용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이주노동자 중 본인이 마련한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산지역은 기숙사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거비용은 ‘직장에서 전액제공’ 한다는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다. 대구시 달서구는 ‘10만원~19만원’을 주거비용으로 소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8.3%를 나타냈다.

## (2) 직주거리

본 연구에서 직주거리는 이주노동자의 ‘시간거리’로 조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본인의 지역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직장까지의 거리는 ‘도보’를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았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소요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소요시간이 없다’는 것은 직장 내 기숙사에 주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직주거리를 ‘도보 20분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대구시 달서구는 66.7%, 경산지역은 76.6%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는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의 직주거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의 39%만이 ‘도보 20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은 ‘도보 30분 이상’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경산지역과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는 직장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과 달리 직장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은 절반 이

상이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는 63.5%가 '사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직주거리와도 관련성이 높다.

### (3) 이주민 공동체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타국생활에서 동일한 문화·역사 등을 지닌 공동체를 형성해간다.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내적 상호작용에는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의 인종·민족·문화적 생활양식이 있다.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의 경우 직업 혹은 생활의 정보 교환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모여 살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내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다진다(김효정, 2008).

이주민 공동체는 대구시 달서구(75.9%), 경산(75.4%), 구미(84.7%)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경산지역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낮은 반면 이를 제외한 국적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공동체 모임의 참여가 높았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국적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입국연도별 공동체 모임 참여율은 세 지역 모두 입국연도와 관계없이 높았다.

이러한 공동체를 설립한 주체는 대부분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만남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설립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주민 공동체를 통한 취업자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구시 달서구의 이주노동자 중 공동체를 통하여 '20명 이상' 취업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5.9%이다. 경산지역은 5~9명이 28.6%, 구미는 1~4명이 35.9%로 지역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2). 공동체를 통한 취업은 먼저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통한 이주민 네트워크에 의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촉발시켜 연쇄 인구이동(chain migration)을 일으킨다. 즉,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이주노동자

표 2. 이주민 공동체를 통한 취업자수

(단위: 명, %)

취업자수	없다	1~4명	5~9명	10~14명	15~19명	20명 이상
달서구 (N=39)	10.3	30.8	7.7	7.7	7.7	35.9
경산 (N=25)	25.7	5.7	28.6	11.4	5.7	22.9
구미 (N=39)	17.9	35.9	5.1	7.7	2.6	30.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의 이주민 네트워크가 타 지역보다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지역별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 직장동료와 지역 사회 주민이 바라보는 시선’,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이주노동자의 사고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직장에서 한국인 동료들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관한 질문에서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 구미지역 모두 ‘같은 노동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적별로는 대구시 달서구의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저개발국가 외국인노동자’로 인식한다고 느꼈다. 경산의 인도네시아인과 구미의 중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직장에서의 시선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주민들이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경산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주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다.

직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즉, 직장보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어느 정도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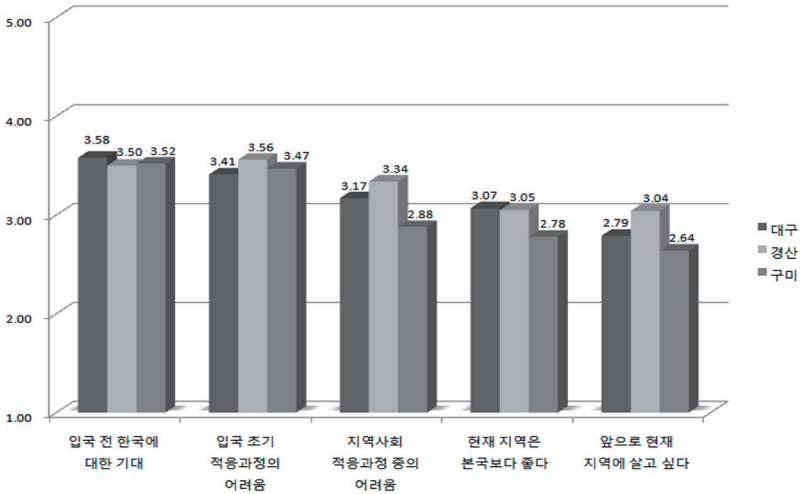


그림 13. 지역사회 적응관련 변화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포비아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관련하여 입국 전부터 앞으로의 상황까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입국 전 한국에 대한 기대’에서는 세 지역 모두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입국 초기에 생활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와 서툰 한국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함에 따라 입국 초기보다는 어려움이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본국보다 좋다’에서 구미지역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현재 지역에 살고 싶다’는 질문에서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전반적인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시선은 직장에서는 노동자,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에 대해 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적응과 관

련하여 입국초기에는 한국생활에 대해 기대가 높았지만, 현재지역이 본국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앞으로 현 거주지역보다는 본국이나 타국에 살고 싶다고 하였다.

#### (5) 지역사회 소비 및 거주지 선호요인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소비 정도가 본인 월급의 20~29% 정도이고,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두 지역보다 작은 10~19% 정도이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이 경산지역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숙사가 아닌 본인이 마련한 개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주거비를 직장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경산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지출 부분에서도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주거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선호요인은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선호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27.1%)는 것이다. 경산지역의 가장 큰 선호요인은 '쉬운 구직(23.9%)'이다. 저렴한 주거비(17.4%)와 '지인이 많다(17.4%)'라는 것도 장점으로 여겨졌다. 구미지역은 21.1%가 '지인이 많다'는 것을 가장 큰 선호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6) 직장 and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입국 후 3년 동안의 체류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일부의 이주노동자들이 만료 후 한국에 미등록 상태로 잔존하게 된다. 이렇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귀환 후 '사업을 하고 싶다'였고, 이는 세 지역 모두 그러했다.

이주노동자의 정책변화에 대한 바램은 '체류기간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입국과정이 단축되어야 한다', '가족과의 동반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한국 내에서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미등록 노동자의 합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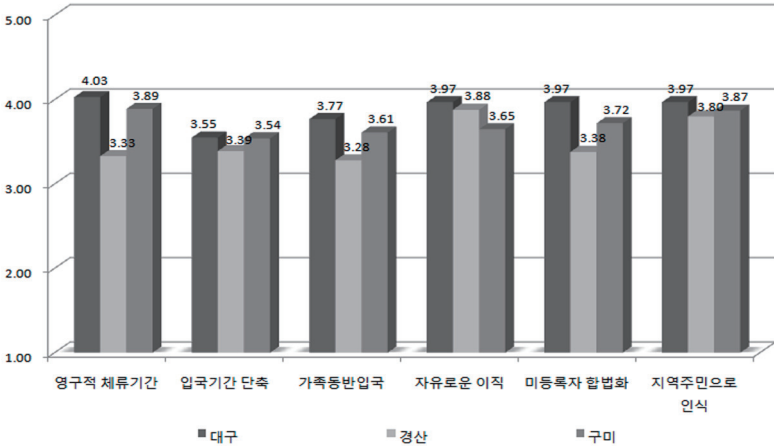


그림 14. 이주노동자가 바라는 정책 변화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대체로 현행 이주노동자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였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대구시 달서구(4.03)와 구미(3.89)지역 노동자는 매우 높은 요구를 한 반면, 경산지역은 3.33으로 두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3.38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응을 보였다. 경산지역은 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합법화에 관한 사항은 세 지역 중 가장 낮아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업종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 대구시 달서구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싶은 비율이 17.4%, 경산지역은 ‘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업’을 희망한 비율

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는 지역산업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업’이 전체의 4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선점은 모두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다. 직장생활에서의 개선점은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라는 응답이, 지역사회에서의 개선점에는 ‘외국인으로 보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구시 달서구, 경산시, 구미시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 과정에 관한 특성, 그리고 지역별 취업직장에서의 특성 및 지역사회 적응에 관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국내 이주노동자의 연구는 유입배경 및 과정, 취업직장 관련, 지역사회 관련 등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국단위로 광역시도에 따른 비교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즉 시군구 단위의 세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 달서구, 경북 경산시, 구미시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이주요인 및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이주에 관한 송출국의 요인(배출요인)은 지역마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가운데, 경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국내요인(흡인요인)에서는 경산과 구미지역이 ‘다양한 업종선택’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경산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역사적으로 비슷한 환경’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주노동자의 출생지역이 ‘농촌’인 경우는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에서 높았고, 구미지역은 대도시와 지방중도시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한국으로 입국 전 거주지역은 모두 지방중도시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입국 전 본국에서 이촌향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한 요인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높은 임금’, 구미지역은 ‘좋은 여건’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출생지는 농촌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해외취업 전 본국에서 도시로 이주 후 해외취업을 한 패턴을 보인다.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도시지역(대도시, 지방중도시)에서 출생하여 지방중도시로 이동한 후 해외취업을 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이주요인 및 과정은 한국으로의 입국 전 상황으로 지역별 이주노동자의 응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입국 후 취업직장에서의 특성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는 대구시 달서구와 경북은 소기업(5~49명)이 높고, 구미지역은 중기업(50~299명)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역 내 사업체 대비 고용인원의 비율과도 일치한다. 모든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는 한 사업체 내에서 ‘10명 이내로 근무하였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농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구미는 ‘기능원’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 직종에서는 본국에서의 직종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직장 내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이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본국에서의 직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툰 한국어와 작업 방식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배치시켜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 기술교육 및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먼저 입사한 이주노동자를 통해’, 경산지역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근로시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이 ‘200~299시간’, 구미는 ‘300시간 이상’으로, 세 지역 모두 한국인에 비해 업무시간이 월등히 많았다. 임금은 모두 ‘100만원~129만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이 가장 많았지만, 임금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 이주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대우와 낮은 임금, 많은 업무량과 작업시간 등 장 직장 내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동료보다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생산성은 한국인보다 높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은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거지의 위치는 대체로 직장주변이지만, 주거지 형태는 대

표 3. 지역별 이주노동자 비교

		달서구	경산	구미	비고
이주요인 및 과정	송출국 요인	낮은 임금	해외취업선호	불안정한 경제상황	경산 해외취업선호 특히 높다
	유입국 요인	지리적 근접성 문화역사적 동질	다양한 업종선택	다양한 업종선택	달서구, 구미 비슷
	이동경로 (출생지)	농촌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달서구, 경산 비슷
	이동경로 (출국 전)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모두 동일
	이동경로 (이동활발)	농어산촌	중소도시	농촌, 중소도시	불일치
	지역선정 요인	높은임금	높은임금	좋은 근무여건	달서구, 경산 비슷
직장관련	사업체 규모	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달서구, 경산 비슷
	고용인원	1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 미만	동일
	본국 업종	농임업	농임업	기능원	달서구, 경산 비슷
	현재 업종	금속업	기타	전자업	불일치
	입사경로	먼저 입사한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	먼저 입사한 이주 노동자	달서구, 구미 비슷
	고용이유	한국인 구직곤란	한국인 구직곤란	높은 생산성	달서구, 경산 비슷
	근로시간(시간)	200~299	200~299	300 이상	달서구, 경산 비슷
	월평균 임금 (만원)	100~129	100~129	100~129	모두 동일
	한국동료와 비교	그림 28 참고			달서구, 구미 비슷
	기술교육	받지 않음	받지 않음	받지 않음	모두 동일

	달서구	경산	구미	비고	
지역 사회	주거지	본인마련개별주택	기숙사	본인마련개별주택	달서구, 구미 비슷
	주거지선택	직장주변	직장주변	직장주변	모두 동일
	주거비용	10~19	직장제공	20~29	
	직주거리	소요시간 없다	소요시간 없다	도보 30분 이상	달서구, 경산 비슷
	교통수단	도보	도보	사내 셔틀버스	달서구, 경산 비슷
	공동체 통한 취업자	20명 이상	5~9명	1~4명	불일치
	정체성(동료)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모두 동일
	정체성(주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달서구, 구미 비슷
	소비	20~29%	10~19%	20~29%	달서구, 구미 비슷
	지출	주거비	전화통신비	주거비	달서구, 구미 비슷
	지역장점	외국인 편견 없음	쉬운 구직	지인 많음	불일치
	희망업종	건설업	전기전자	전기전자	경산 구미 비슷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주: 해당항목의 1순위를 선정하여 표 작성

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은 ‘본인마련 개별주택’이 높았고, 경산지역은 ‘기숙사’생활이 높았다. 또한 주거비용도 경산지역은 기숙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은 10만원~19만원, 20만원~29만원의 비율이 높았다. 직주거리는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이 ‘소요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숙사 거주 비율이 높거나 직장 옆에 합숙소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퇴근 교통수단은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에서 ‘도보’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구미지역은 직주거리도 길기 때문에(도보 30분 이상) 사내 셔틀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를 통한 취업자 수는 대구시 달서구의 이주노동자가 ‘20명’ 이상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취업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 지역 공통적으로 직장동료는 같은 ‘노

동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외국인'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사회에서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는 월급의 '20~29%'를 소비하고, 그 중 주거비의 비율이 높았다.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는 '10~19%'로 전화통신비의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달서구와 경산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역 내 산업도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생활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역사회의 특성보다는 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국적이 비슷한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유사하다. 결국 지리적 근접성 등 지역별 특성보다 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이 지역사회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는 취업직장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별 특성보다 민족과 국적 등 이주노동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고용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적응양식을 파악하였다. 향후 그들이 해외취업을 하게 된 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한국내 지역적 특성과 결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04월 30일 접수, 06월 20일 수정, 06월 27일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효정, 2008, 한국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 -남아시아 무슬림의 에스닉 집단화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105-146.
-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이규용·이해춘·조준모·노용진·김현구·박의경, 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 1998,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그 종합적 이

- 해를 위하여,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이희연, 1986, 인구지리학, 서울: 법문사.
- 정수열, 1999,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 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27-42.
- 정진화, 2005,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요인,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23(1), 145-162.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년 12월 통계월보.
- 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 한진희·최용석, 2005,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28(1), 1-25.
- Beck, U., 1986, 위험사회: 새로운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옮김, 2006, 새물결.
- Giddens, A., 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옮김, 1999, 생각의 나무.
- Peter Stalker, 2002, 국제 이주, 김보영 옮김, 2004, 이소출판사.
- 蔑陸, 2007, 교회활동을 통해서 본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Byrne, D., 1999, Social Exclus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 **A Study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Workers and Their Accommodation to Local Community: Focusing on Cases of Dalsu-gu, Daegu and City of Gyeongsan and Gumi, Gyeongsangbuk-do.**

Hyeok-Min Kwon\*

**Abstract\_**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has increased sharply since 2000, and reached up to 528,812 in 2008. Recent discussions about immigrant worker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aspects such as immigrant course and adaptation and characteristics in workplace and regional community. Those discussions, however, have been biased to national level or specific regions and thus studies on characteristics at local level in which they actually reside have been limited, it can be argued that and hence we ne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adaptation of each region by comparing immigrant worker's regional units classified by sizes of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and accommod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three of different size of cities, that is, large city, suburban city of large city, local small-medium city, which are represented by Dalseo-gu in city of Daegu, city of Gyeongsan, and city of Gumi.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respondents about immigrant factors and immigration courses were highly varied by regions. Second, It is found that characteristics in workplace in which they work after immigration to Korea were similar between them in city of Dalsu-gu and Gyeongsan, especially in size of company, job in home country, reason for employment, and work hours. Third, It is found that there were simi-

---

\* Korea Industrial &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er, Geography, overload486@nate.com

larity in life in regional community between workers in the city of Daegu and Gumi, especially in the type of residence site, identity of regional community, and consumption and expense, especi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reason selection of residence site and identity in workplac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olicy making about immigrant workers of each region in future by providing fundamental data.

**Keywords** Im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igration, Adaptation to Local Community of Immigrant workers